

줄리엣과 공유 에디션

이웃집 연구자 01

도시 광부는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30가지 사회 혁신 실험

마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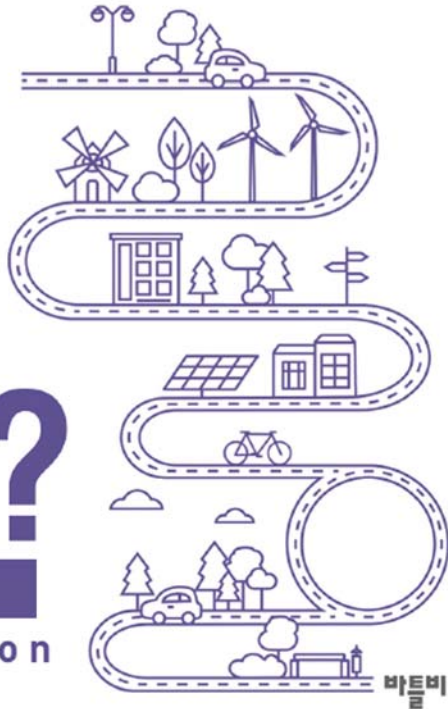
사회를

바꿀까?

프로로그

Social Innovation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기획 | 윤찬영 지음



공유 에디션 발간에 부쳐

“사회 혁신은 우리 모두가 빛나는 별이 되고
또 그 별들이 서로서로 별자리로 이어져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일이다.”

책이 세상에 나온 지 여섯 달 만에 4쇄를 출간합니다.
감사의 뜻으로 프롤로그 ‘사회 혁신, Social Innovation’을 뽑아
공유 에디션을 제작했습니다.

사회 혁신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그 흐름을 만들어 온 개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기본 개념 등이 담겼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사회 혁신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 곳곳에
사회 혁신이라는 멋진 별자리들이 이어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윤찬영

ycyoung0416@gmail.com

<http://ycyoung0416.blog.me>

마들비

줄리엣과 도시 광부는
어떻게 마을과 사회를 바꿀까?

줄리엣과 도시 광부는
어떻게 마을과 사회를 바꿀까?

2019년 2월 11일 초판 1쇄 발행

2019년 9월 5일 초판 4쇄 발행

기획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지은이 윤찬영

펴낸이 정희용

편집 박은희

펴낸곳 도서출판 바들비

주소 07255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33 성도빌딩 3층

전화 02-2039-2701

팩시밀리 0505-055-2701

페이스북 www.facebook.com/widhbartleby

블로그 blog.naver.com/bartleby_book

이메일 BartlebyPub@gmail.com

출판등록 제2017-000105호

ISBN 979-11-964869-3-8 03330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꿔드립니다.

차례

추천의 글 8

들어가며 함께라면 더 갈 수 있다 10

프롤로그
사회 혁신,
Social
Innovation
●13

세계 곳곳에 등장하는 새로운 해법들 15

-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넘는 해법
-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의 사회 혁신

사회 혁신이란 무엇인가 35

1장
사회 혁신,
도시의 풍경을
바꾸다
●47

도시 재생, 주민이 되살린 도시들 49

- 죽은 항구 도시에 유토피아를 세우다 네덜란드 데 퀘벌
 - 20년간 되살린 네 개의 거리 영국 그랜비 포 스트리츠
- 깊이 들여다보기 참여를 끌어낼 때 주의할 점 74

차와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법 76

-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없는 공유 골목
독산4동 행복 주차 골목 만들기
- 차와 자전거와 사람이 함께 거니는 길
오스트리아 마리아힐퍼 거리

자원 재활용, 관계가 깊어지면 쓰레기가 줄어든다 105

- 사귀고 배우며 쓰레기를 줄이다
암스테르담 웨이스티드 프로젝트
- 이웃이 함께 가꾸는 쓰레기 없는 골목 독산4동 재활용 정거장

2장
정부의
빈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실험들
●117

정부 혁신, 실험하는 정부 119

- 행복도 1위 나라의 거대한 실험 핀란드 꼬개일론 빠이까
깊이 들여다보기 정부 혁신과 시민사회 128

노인 복지, 공동체가 함께 이웃을 돌보다 131

- 복지국가를 뛰어넘는 복지 동네 혁신적 노인 돌봄 체계, 서클
회원들에게 듣다 “서클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다” 138
- 친구를 찾아 떠나는 노인들의 여행 아일랜드 프리버드 클럽
- 사람은 반려견을, 반려견은 사람을 돌보다
네덜란드 오포 프로젝트
인터뷰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황석연 시민협업팀장 151

리빙랩,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실험실 156

- 노인의 일상을 돕는 똑똑한 가사 도우미
이해관계자의 개선 요구 반영한 캡틴
- 라이브시티즈, 혁신의 민주화를 위한 플랫폼
깊이 들여다보기 리빙랩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65

장애 청소년 교육에도 변화는 가능하다 169

- 발달장애 학생에게 책과 친구를 선물하다
피치마켓과 책 읽기 친구들
남은 이야기 상암고등학교 친구들의 100일간의 책 읽기 179

대안 경제, 사람 중심의 경제를 꿈꾸다 182

- 단단한 연대로 든든한 경제 만들기
마포공동체 경제네트워크 모아

3장
기술의
쓰임새를
바꾼
착한 기술들

● 195

드론, 사람을 살리는 날갯짓 197

- 혈액을 싣고 아프리카 하늘을 날다

벤처기업 줌라인의 도전

- 쪽방촌에 새로운 길을 내다

대학생들이 시작한 엔젤스윙

깊이 들여다보기 4차 산업혁명과 사회 혁신 214

에너지 기술로 더 오래 가는 세상을 만든다 217

- 배터리를 되살려 세상을 밝히다

떠들썩하지 않지만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기술

적정기술, 모두를 위한 기술을 꿈꾸는 사람들 229

- 10분의 1 가격으로 95%의 안정한 잡는 의료장비

의학과 기술의 다리를 놓다

-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빛을 선물하다

스마트폰을 의료기기로 만드는 피크

인터뷰 생활기술과 놀이멋짓연구소 김성원 소장 245

4장
디지털
사회 혁신,
참여와 협력의
기준을 바꾸다

● 251

디지털 사회 혁신, 더 큰 정치를 코딩하다 253

- 몽상가의 꿈이 현실이 되다 아이슬란드 더 나은 레이카비크

● 내 손으로 도시를 바꾸다 스페인 디사이드 마드리드

- 시장님 저 아이디어 있어요 프랑스 파리 참여예산

● 참여 민주주의의 미래 브라질 이-데모크라시아

- 의원과 함께 춤을 시민사회가 주도한 프랑스 의회와 시민

깊이 들여다보기 디지털 민주주의와 정치 혁명 가로막는 장벽 282

플랫폼,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 284

- 모두가 하나씩 쓰레기를 주워 깨끗한 지구 만들기

쓰레기 제거 플랫폼 리터러티

- IT 기업이 이주 외국인에게 법을 선물하다

라임프렌즈가 만든 법률 플랫폼

인터뷰 플랫폼 협동주의 주창한 트레버 솔츠 교수 301

교육으로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법 307

- 감성놀이터, VR·AR로 청소년에게 미래를 보여주다

한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 317

- 유럽이 만들어가는 사회 혁신의 미래

에필로그
유럽의 사회 혁신,
한국의 사회 혁신

● 315

주 335

부록 유럽의 사회 혁신 소개 341

하승창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문재인정부 첫 사회혁신수석)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으로 일하면서 광화문1번가나 사회혁신파크, 실패박람회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실행할 수 있는 매개로서 플랫폼을 만들어 시민사회의 사회 혁신 흐름을 도울 수 있었던 건 큰 보람이었다.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무대 위로 오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때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 나누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은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고 현명하며 해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중심이다.

『줄리엣과 도시 광부는 어떻게 마을과 사회를 바꿀까』는 사회 혁신 현장의 실제 사례와 경험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에 참고가 되는 생생한 경험들이다. 이 책이 널리 읽혀서 사회혁신 네트워크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황석연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시민협업팀장

책이 발간되기도 전에 먼저 읽는 기쁨을 누렸다. 골리앗 크레인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 조선소를 둘러보고 온 터라 네덜란드의 데 퀘 벌이나 스페인의 빌바오에서 일어난 전환 도시 실험에 자연히 눈길이 갔다. 이처럼 정부나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난제들이 쌓여만 가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메타블릭연구소 대표 에바 글라텍의 조언에 답이 있었다. “지금 당장 정부는 시민들의 창의적인 실험들이 일어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방치된 거리를 살리기 위해 곳곳에 꽃을 심고 공터를 공동체 정원으로 만드는 것은 오롯이 시민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해 지구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책에는 줄리엣과 도시 광부들처럼, 정부의 빈자리를 채우는 다양한 시민의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가히 시민들이 엮어가는 사회 혁신판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라 할 만하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장려하고 싶다면 이 책에 등장하는 시민들의 실험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이다.

함께라면 더 갈 수 있다

사회 혁신이란 말을 처음 접한 건 2016년이였다. 아프리카에서 물을 손쉽게 길어오기 위해 쓰는 커다랗고 둥근 통이나 오염된 물을 빨아들이면서 곧바로 정화하는 생명 빨대 같은 것들을 떠올렸다. 세상에 없던 참신한 아이디어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 멋져 보였다. 그렇게 서울혁신파크에서 일을 시작했고 1년 반 정도를 일했다.

리빙랩 공모 사업을 맡았는데 리빙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별수 없이 닥치는 대로 자료를 찾아 공부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리빙랩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세종시까지 한달음에 차를 몰고 간 일도 있었다. 공부하고 조사하는 사이에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

나는 사회 혁신이 뭐지 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일도 어렵지 않다. 건방지다고 욕할지 모르겠으나 그리 어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 혁신이 어렵다면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 개념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딱히 맞고 틀리고를 가려낼 일도 아니다.

그동안 많은 사례를 찾아보고 글을 읽었다. 정의만도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았다. 하지만 강연을 할 때 화면에 띄워놓고 설명을 할 뿐 그것들을 굳이 기억하고 있진 않다. 그럴 필요도 없다. 몇 가지 열쇠말로도 충분하다. 무엇보다 머릿속에 어떤 풍경들이 그려지기만 하면 된다. 내 머릿속에는 벌써 여러 풍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독자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공부하면서 접한 유럽의 분위기가 부러웠다. 자주 오갈 여건이 되고, 영어를 조금 더 잘한다면 나도 그들처럼 수시로 만나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한국엔 아직 정보도, 토대도, 또 의지나 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글 쓰는 일을 좋아해 틈틈이 자료를 찾고 정리를 할 수 있었다. 책을 내면서 여러 나라에 이메일을 보냈다. 고맙게도 사진과 최신 정보들을 보내줬다. 언젠가 그들도 내게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다음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책을 쓸 생각이다. 책이 나오는 대로

사람들을 모아 더 많은 사례를 찾고 분석하고 토론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이론을 만들어보고 싶다. 내가 현재 몸담고 있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이를 수행할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할 생각이다. 혼자서는 여기까지밖에 못했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누구든 환영한다.

사회 혁신이 궁금한 이들에게, 또 스스로 세상을 바꿀 새로운 길이 되려는 이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동장 시절부터 수년째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황석연 팀장님과 독일로 떠나기 전 어렵게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승창 전 수석님에게 감사드린다. 또 벌써 여러 번 귀찮은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신 혁신가분들에게도 늦었지만 고마움을 전한다. 이제 7살이 된 말쑹꾸러기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2019년 1월

윤찬영

프롤로그

사회 혁신, Social Innovation

■ 세계 곳곳에 등장하는 새로운 해법들

■

2017년 어느 날, 아프리카 르완다에 사는 24세 산모가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다 합병증이 생겨 많은 양의 피를 쏟기 시작했다. 병원에 있던 혈액을 모두 투여했으나 10분 만에 피가 도로 쏟아져 나왔다. 산모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병원은 곧바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혈액공급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몇 분 뒤 혈액 팩을 실은 무인항공기 드론이 날아올랐다. 불과 십여 분이 지나 혈액 팩은 수술실로 전해졌다.

비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원은 피가 떨어질 때마다 센터에 연락을 했고, 그때마다 드론이 다시 날아올랐다. 그렇게 드론은 몇 번이나 공급센터와 병원을 오가며 적혈구 일곱 팩, 혈장 네 팩 그리고 혈소판 두 팩을 실어 날랐다. 우리 몸의 혈액보다도 더 많은 양이었다. 다행히도 산

모와 아이 모두 살아남았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소셜 벤처 줘라인 Zipline이 르완다에 세운 무인 항공 공급 체계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세계에서 처음이자 적어도 아직까지는 유일한 체계다.

2016년 줘라인은 르완다 정부와 계약을 맺고 드론으로 혈액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혈액공급센터를 세웠다. 한 번에 150km를 비행하는 드론으로 르완다 국토의 절반에 혈액을 실어 나른다. 가까운 곳은 몇 분이면 도착한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필수적인 약을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때에, 낭비와 비용, 재고를 줄이면서 접근성을 높이고 생명을 구하고 있다.”

줘라인의 공동창립자이자 CEO인 켈러 리나우도 Keller Rinaudo의 말이다. 보통 혈액은 냉장상태로 42일간만 저장할 수 있다. 그 이후엔 버려진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비하려면 버려지는 걸 감수하면서도 병원마다 어느 정도의 혈액을 보관해야 한다. 병원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버려지는 혈액도 늘어나는 셈이다. 아프리카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건 마찬가지다.

르완다 정부도 수도 키갈리의 국립센터와 네 개의 보급소에 많은 양의 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십 곳의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혈액을 공급해왔다. 그러다 보니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 드론이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날아와 병원 상공에서 혈액을 투하한다. © zipline

키갈리에서 30km 떨어진 르완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캅가이의 병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병원 스태프들은 하루에도 서너 번씩 혈액을 얻기 위해 키갈리를 다녀와야 했다. 대개 서너 시간이 걸리니 응급상황이라도 벌어지면 차라리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편이 더 나았다.

지금은 어떨까. 스마트폰으로 혈액이 필요하다고 연락하면 드론이 15분 만에 날아와 낙하산이 달린 종이상자를 병원 앞마당에 떨어뜨려준다. 다른 곳도 30분을 넘기지 않는다. “지난 60년간 전 세계 공공 의료가 해결하려 애썼지만 풀지 못한 문제”라는 켈러 리나우도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한 패기 넘치는 청년과 그가 이끄

는 소셜 벤처가 지금껏 그 어떤 공공 정책이나 시장 논리로도 풀지 못했던 사회적 난제를 단번에 해결할 길을 찾아낸 것이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미국 교통부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0개 주와 도시에서 드론으로 의약품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쥘라인에게 시범 비행을 허가했다. “70억 인류 모두가 의약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는 그의 포부가 실현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베르타는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베로나에 산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속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을 속삭이던 곳이기도 하다. 그녀는 장애가 있어 오십이 다 되도록 변변한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카를라는 수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아들과 함께 살 집을 구하지 못해 벌써 몇 달째 떨어져 살고 있다. 정부가 주는 아주 적은 수당으로는 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가 쉽지 않다.

이들의 손을 잡아 준 것은 이웃들이었다. 같은 도시에 살던 안나 피스칼리 Anna Fiscale와 그의 친구들. 그들은 2012년 윤리적인 패션 기업을 만들기로 하고 협동조합을 꾸렸다. 이름하여 프로젝트 퀴드 Progetto Quid. 퀴드는 ‘더 나은 무언가’라는 뜻의 라틴어다. 이들은 남들이 입던 의류를 모아 재활용 패션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베르타와 카를라처럼 장애를 가졌거나 폭력과 성매



●
작업장의 모습. 2년 새 30명을 더 고용할 만큼 퀴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Progetto Quid

매 피해, 또는 범죄나 마약에 노출된 여성들을 고용했다.

그들은 베네토주의 패션 기업들에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다행히 칼제도니아(Calzedonia) 그룹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알아봤다. 칼제도니아는 고급 옷감을 기부하고 비어 있는 가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안나는 “이 운명적 만남이 도약점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프로젝트 퀴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2013년부터 해마다 개최해온 유럽 사회혁신대회[•]에서 2014년 3개 팀 가운데 하나로 뽑혔다. 이 해에는 무려 1250개의 프로젝트가 열린 경쟁을 벌였다.

“장애 때문에 일을 구할 수 없었다. 이 일은 나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한다.”

“아들과 살 집을 마련해서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베르타와 카를라의 말이다. 이곳에선 그녀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7개 나라에서 온 100여 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2년 새 고용이 30명이나 늘었다. 벼랑 끝에 섰던 이들에게 퀴드가 내민 손은 일자리보다 ‘더 나은 무언가’다. 그래서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옷

- 대회의 주요 내용은 부록 참조.
- 베르타와 카를라의 자활을 담은 유튜브 (Progetto Quid) 중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cuY1NW6ulxY&feature=youtu.be>

을 만든다. 다행히 그들이 만들어낸 값어치를 소비자들도 알아봐 준다. 사람들은 좋은 품질의 옷(갑)을 재활용한 제품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얻은 이들이 한 땀 한 땀 직접 손으로 만든 옷이라는 점에 끌려 기꺼이 지갑을 연다.

이들이 만든 옷은 베로나, 메스트레, 볼로냐, 바사노 텔그라파와 바제세 등 5개 직영 매장과 65개 파트너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2017년에는 ‘유럽 여성 혁신가상’에 뽑히기도 했다. 2018년에도 세계적 패션 브랜드인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와 파트너십을 맺고 8월에 새로운 매장을 여는 등 성장이 꾸준하다. 이들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패션계가 더 지속 가능하도록 기여하고 있다.”며 자부심을 드러낸다.

이윤만을 좇는 기업에 베르타와 카를라처럼 장애나 상처를 가진 이들이 머물 자리는 드물다. 정부도 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법을 알지 못한다. 베르타와 카를라가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열어준 건 그들을 믿고 손을 내민 협동조합이었다. 믿음과 연대에 뿌리를 둔 새로운 경제, 이른바 ‘사회적 경제’가 더 따뜻하고 고른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프랑스에 사는 샤를로트 드 빌모(Charlotte de Vilmorin)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줄곧 휠체어를 타야 했다. 성인이 된 그녀는 2015년 여행을 가기 위해 휠체어로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알아보다 어마

어마한 비용에 놀라 포기했다. 스스로 새로운 해법을 찾기로 마음 먹은 그녀는 몇 달 뒤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개조 차량 공유 플랫폼 휠리즈 Wheeliz를 열었다.

휠체어를 탄 채로 차량에 탑승하려면 널찍한 공간에 경사로가 설치되어야 하고, 휠체어를 고정할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휠체어를 탄 채로 운전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은 더 늘어난다. 프랑스에는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소유한 개조 차량이 10만 대에 달한다고 하니 나눠 쓰기엔 모자라지 않다. 비용도 일반 대여 업체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고, 차를 빌려주는 쪽도 새로운 수입이 생기니 모두에게 이롭다. 휠리즈는 보험료를 포함해 대여료의 30%를 가져간다.



• 휠리즈 창업자이자 CEO인 샤를로트 드 빌모와 개조 차량의 모습. ©Wheeliz

처음엔 모금으로 2만 1000유로(약 2700만 원)를 모아 60대의 차로 시작했다. 반나절이나 하루, 또는 일주일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3년이 지난 2018년에는 등록 차량이 열 배가 훌쩍 넘는 900대로 불었고, 사용자 커뮤니티엔 8000명이 모여들었다. 100만 달러(약 11억 2000만 원)의 투자도 받았다. 앞으로는 운전자를 제공하거나 차를 집까지 배달하는 등의 새 서비스를 더할 계획이다.

“뭔가 옳은 일이 이뤄지길 바라다면, 당신이 직접 하는 게 최선이다.”

휠리즈는 2017년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꼽혔다. 그래서 그녀의 말은 더 힘이 있다. 휠리즈는 그녀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공유라는 가치에 뜻을 모아 기꺼이 차를 내준 900명이 없었다면 한낱 꿈으로 그쳤을 일이다. 커뮤니티에 모인 8000명도 마찬가지다. 그 수백 수천 명이 휠리즈라는 공유 플랫폼을 채우고 떠받치는 힘이다. 사람들의 힘과 의지를 한데 모으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1974년, 극심한 기근이 방글라데시를 덮쳤다.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지 겨우 3년째, 새 정부는 부패하고 무능했다. 여기에 최악의 홍수까지 겹쳐 쌀값이 치솟고 전염병이 퍼져갔다. 굶어 죽

고 병들어 죽는 이들이 속출했다. 피해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더 컸다.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고향 방글라데시로 돌아온 무하마드 유누스 Muhammad Yunus 는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다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어느 시골 마을을 찾아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마을의 여성들은 대나무 의자를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대나무를 사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이 돈은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빌려야 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일반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거의 원금에 맞먹는 이자를 물어야 했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은 멀기만 했다. 유누스는 생각했다. '이들에게도 약간의 자본금이 있다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42명의 여성에게 27달러를 빌려줬다. 적은 돈이었지만 그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여성들은 그에게 빌려간 돈을 모두 갚았을 뿐 아니라, 삶에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란 희망.

그는 얼마 뒤 '마을 은행'이란 뜻의 그라민은행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일에 뛰어들었다. 대학과 손을 잡고 몇몇 마을로 사업을 넓혔다. 5년도 안 돼 약 500가구가 그라민은행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30여 년 뒤인 2006년, 유누스는 그라민은행

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벨위원회는 선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누스와 그라민은행은 극빈층도 일해서 자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줬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2006년 그라민은행의 고객은 방글라데시에서만 660만 명에 달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그라민은행 모델에서 영감을 얻은 마이크로 크레딧 Micro Credit 제도가 뿌리를 뻗어가고 있었다.

결코 끊을 수 없을 것 같던 오래고 질긴 가난의 고리를 끊어낸 건 아주 작은 '믿음'이었다. 작지만 지금껏 누구도 품거나 건넨 적 없는 믿음. 유누스가 믿은 건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이웃과 자기 자신이었다. 그 믿음과 용기가 그를 세상에 없던 실험으로 이끌었다.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넘는 해법

가난과 불평등, 고령화와 청년 세대의 기회 상실,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 인종·계층 갈등...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도 인류는

풀리지 않는 숙한 문제들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십여 년 사이 새롭게 나타난 과제들도 인류의 미래를 위협한다. 갈수록 늘어가는 난민은 공동체의 통합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지역 공공 서비스에 새로운 부담을 더한다. 또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는 개인 지출은 물론 공공 예산의 지출을 가파르게 높인다. 나날이 늘어가는 비만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더불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복지국가 체계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세계적 경제 위기와 뒤이은 불황은 청년실업과 같은 문제들을 더 악화시켰다. 그러나 정부도 시장도 이들 문제 앞에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일부는 현재의 체제나 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¹

따지고 보면 정치·경제 권력을 쥔 집단이 사회 구성원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건 현실을 뛰어넘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는 늘 존재했다. 역사가 기록한 숙한 민중봉기와 혁명이 그것을 말해준다. 19세기 들어서는 사회의 변화와 진보를 그럴듯한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혁신적 기술의 발명이나 사회 모순과 계급 투쟁, 또는 인류 이성의 진보 따위로 거대한

사회 변화를 설명하려는 노력 말이다.

언제부턴가는 경제학이 다른 모든 이론을 밀어내고 가장 ‘그럴 듯한’ 학문으로 떠받들어졌다. 하지만 크고 작은 경제 위기를 거치는 동안 경제학이 한 일이라곤 후일담을 늘어놓는 것뿐이었다. 오죽하면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경제학적 예측의 유일한 기능은 점성술을 점잖고 존경할 만한 분야로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비아냥댔겠는가.²

영국의 대표적인 혁신 기관 네스타^{NESTA}의 대표 제프 멀건^{Geoff Mulgan}은 이러한 모든 이론(시도)들이 아주 단순한 오류에서 출발했다고 꼬집었는데 그가 말한 오류란 다름 아닌 “복잡하기 그지없는 사회 현상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것”, 바로 그 자체였다.³

세상이 나아갈 길을 밝혀줄 그럴 듯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세상과 삶을 바꾸고자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이들이 나타났다. 미국의 켈러 리나우도, 이탈리아의 안나 피스칼리, 프랑스의 샤를로트 드 빌모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처럼 말이다. 더 나은 무언가를 꿈꾸며 열심히 옷을 만드는 베르타와 카를라도, 그라민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난의 고리를 끊고자 용기를 낸 여성들도, 어느 소설 벤치의 첫 도전을 믿어준 아프리카 르완다 정부도 그리고 휠리즈에 자신의 차를 등록하고 또 차를 빌리는 수백 수천의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똑똑해졌고, 여기에 더해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해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그것을 깨달은 이들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에 기술 혁신이 단단히 한 몫한 것은 물론이다.

『모두가 디자인하는 사회 Design, When Everybody Designs』를 쓴 이탈리아 밀라노공대 에치오 만치니 Ezio Manzini 명예교수도 최근 사회 혁신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정보통신 기술의 확산과 그것이 만들어 낸 사람 간의 새로운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더는 하나가 아니다. 밤하늘을 가득 메운 무수한 별만큼이나 많은 저마다의 답답함을 풀어줄 하나의 길 따윈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었다. 답답함을 느끼는 그 누군가가 스스로 답을 찾아 길을 만들어야 한다. 밤하늘 별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지금까지 없던 답을 찾아 새로운 길을 내려는 흐름, 그것이 바로 사회 혁신 Social Innovation이다. 그러니까 사회 혁신은 세상 사람 모두가 답이 되고 길이 되는 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둠을 밝히는 빛나는 별

이 되는 그런 일이다.

영화 <마션 The Martian>에서 화성에 홀로 남겨졌다 가까스로 지구로 돌아온 마크는 우주비행사가 되려는 학생들에게 ‘우주에서 살아남는 법’을 이렇게 알려주었다.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부딪혀보는 거다. 간단하다. 그저 뛰어들면 된다. 하나의 문제를 풀고, 그리고 다시 다음 문제를 풀고, 또 그 다음 문제. 그러다 보면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다. 간단하다. 그저 뛰어들면 된다. 하나의 문제를 풀고, 다시 다음 문제를 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정말 크고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풀 수 없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모든 걸 혼자서 해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우주선을 만들어 화성에 보내야 할 땐 정부와 손을 잡으면 된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의 사회 혁신

사회 혁신이 관심을 끈 건 2000년대 들어서다. 이른바 사악한 Wicked 문제들에 맞서는 흐름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부터다. 이 즈음 영국의 사회 운동가들과 연구자들이 사회 혁신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 정책 영역으로 옮겨갔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하면서 백악관에 '사회 혁신 및 시민참여국 The White House Office of Social Innovation and Civic Participation'을 마련했다. 정부 혼자 해결하기 힘든 여러 사회 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보겠다는 뜻이었다.

유럽도 일찍부터 사회 혁신에 관심을 두었다. 세계 금융 위기를 겪은 직후인 2009년엔 이미 사회 혁신이 유럽연합EU의 정책 어젠다로 격상되었고, 폭넓은 정책과 프로그램, 기관들을 통해 주류로 자리 잡았다.

2009년 1월, EC 위원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는 '유럽과 사회 혁신'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특히 사회 혁신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듬해 영국에선 데이비드 캐머런이 이끄는 보수당이 총선을 앞두고 빅 소사이어티 Big Society를 대표 의제로 내걸었다. 사회적 연대에 뿌리를 둔 시민과 지역 공동체의 힘으로 정

부보다 더 크고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하겠다는 포부였다(복지 예산을 줄이면서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려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같은 해 EU는 2020년까지 유럽 경제를 성장시킬 전략으로 유럽 2020 전략 Europe 2020 Strategy을 발표했다.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내건 이 전략에는 7개의 핵심 정책이 담겼는데 그 첫 번째가 혁신 연합 Innovation Union이다. EU를 '혁신적' 연합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뜻이다. 유럽 사회가 맞닥뜨린 여러 사회적 도전을 해결할 혁신적 아이디어들을 뒷받침하고자 연구와 혁신 정책 분야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발맞춰 유럽에선 여러 시도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혁신의 이론적·정책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연구TEPSIE[●], 또 곳곳에서 벌어지는 시도들을 보다 근본적인 사회 변화로 이끌어 갈 방법을 찾으려는 연구TRANSIT^{●●}가 EC의 지원 아래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책도 이들 연구에 많이 기대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사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임팩트 투자^{●●●}도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글로벌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

- The Theoretical, Empirical and Policy Foundations for Building Social Innovation in Europe 프로젝트. DTI(Danish Technological Institute)와 Young Foundation 등 6개의 연구기관이 모여 2012~2015 3년간 진행하였다.
- Transformative Social Innovation Theory 연구 프로젝트. 사회 혁신과 근본적 사회 변화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연구로 2013~2017 4년간 진행되었다.

GIIN, 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225개 투자자들은 2017년 한해 1만 1136개 사업에 약 355억 달러(약 40조 원)의 임팩트 투자를 감행했다. 이는 2016년 조사에서 205개 투자자가 7951개 사업에 약 221억 달러(25조 원)를 투자한 것에 견줘 60%가 늘어난 규모다. 2018년 투자 예상 규모는 약 384억 달러(약 43조 원)로 2017년보다 8%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투자자들이 임팩트 투자 부문에서 운영하는 자금 규모 역시 2016년 1140억 달러(약 129조 원, 208개 투자자)에서 2017년 2281억 달러(약 258조 원, 226개 투자자)로 두 배로 늘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단계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혁신수석'이 만들어지고(1년 만에 시민사회수석으로 바뀜), 행정안전부에 '사회혁신추진단'을 꾸렸다. 물론 그동안 몇몇 지방정부나 정부 부처, 민간에서 이론 성과도 없지는 않다.

임팩트 투자 규모도 꾸준히 커지고 있다. 2015년 540억 원에서 2016년 760억 원 규모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는 2018년 안에 1000억 원의 임팩트 투자 펀드를 조성할 뜻을 밝혔고, 정부도 2018년 '사회가치기금'을 설립해 앞으로 5년간 3000억 원을 사회적 경제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K행복나

●●● 임팩트 투자란, '긍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재무적 수익과 더불어 사회적·환경적 가치(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기업, 단체)에 대한 공공, 민간, 자선기금의 투자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가난과 불평등은 간접할 수 없이 깊어졌지만 정부의 공간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다. 이때 뜻 있는 투자자들이 임팩트 투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2009년 록펠러재단과 J.P.모건이 힘을 모아 GIIN(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을 세웠다.

눔재단과 IBK투자증권, 우리은행 등의 민간 기업들도 임팩트 투자 펀드에 수십억 원씩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넘는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아직 갈 길이 한참 멀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아직 사회 혁신을 잘 모른다. 아마 사회 혁신이라는 말조차 들어본 적 없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들어봤다고 한들 자신 있게 말로 풀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사회 혁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썼다. 사회 혁신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대체 왜 시작했는지 알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또 사람들이 어떤 말로 그것을 설명해 왔고 또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유럽의 앞선 연구들을 찾아보며 나 스스로 궁금했던 물음에 답을 찾으려 애썼고 풍부한 사례들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 책에는 국내외 30개의 사회 혁신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사회 혁신은 개념을 설명한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풍경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책에 담긴 30개의 사례를 보고 나면 머릿속에 풍경의 변화가 그려지면서 알게 될 것이다.

해마다 열리는 유럽 사회혁신대회를 비롯한 경연에서 뽑힌 사례 가운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검증된 것들 위주로 책에 실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좋은 이야기만을 담지는 않았다. 가급적 많은

자료를 뒤져 가능한 한 자세히, 있는 그대로 소개하려 애썼다.

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 ‘한국 사회 혁신 지도’, ‘사회 혁신 길 찾기’ 등의 제목으로 연재했던 글도 있다. 연재 당시 원고 분량 제한으로 기사에 담지 못했던 이야기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었다. 글을 다듬으면서는 다시 새로운 기사를 찾아보거나 단체와 당사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달라진 상황도 찾아 실었다.

부디 이 책이 우리 사회에 사회 혁신이란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단단히 뿌리내리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그럼 지금부터 설레는 여정을 시작해보자.

사회 혁신이란 무엇인가



사회 혁신을 정의하기란 어렵다. 답아야 할 내용이 많기도 하거니와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일도 만만치 않다. 왜 그럴까. 무엇보다도 사회 혁신은 ‘실행이 이끄는 영역’이기 때문이다.⁵ 세계 곳곳 삶의 현장에서 당장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워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흐름이다. 당연히 이론이나 개념이 먼저 존재했을 리가 없다. 학문으로서 다뤄진 지도 길어야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난 저마다의 상황과 처지도 너무 다르다. 영국의 대도시와 인도의 시골 마을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차이를 하나의 개념이나 정의로 아우르기란 쉽지 않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의 사회 혁신 사례가 쉽게 확산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회 혁신은 개념이 엄밀하게 확립된 상태가 아니라서⁶ 서로 다른 요소들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경험적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불확정적 본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 개념이 다 포괄하지 못한다는 뜻이다.⁷ 사회적 자본, 사회적 통합, 임팩트 투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등도 따지고 보면 다 비슷한 처지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 혁신을 비판하는 근거로도 쓰이지만,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기도 한다. 다양한 해석과 정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의가 꼭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개방성’이 사회 혁신의 문턱을 낮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만큼 넓어진 사회 혁신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여럿이 함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래서 공통의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20여 년 사이에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주목하며 사회 혁신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다. 여기에는 2007년에 벌어진 세계 금융 위기도 한몫했다. 정부와 시장에겐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해법이 절실했다.

지금부터는 사회 혁신의 정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책을 읽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정의를 맞닥뜨리게 될 텐데, 사회 혁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더불어 그것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는

(2007년에 꼽은) 세계를 바꾼 10대 사회 혁신⁸

1. 열린 대학 The Open University
2. 공정 무역 Fair trade
3. 그린피스 Greenpeace
4. 그라민은행 Grameen Bank
5.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Amnesty International
6. 옥스팜 Oxfam
7. 여성연구소 The Women's Institute •
8. 리눅스 Linux Software
9.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NHS, National Health Service
10. 참여예산제 Participatory Budgeting Models

작업은 사회 혁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혁신’이란 말을 짚고 넘어가자. 그동안 혁신은 ‘경영’이나 ‘기술’이란 단어와 훨씬 더 잘 어울렸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소비자들이 이제까지 느껴온 가치 Value와 만족 Satisfaction에 변화를 일으키는 활동”이라고 혁신을 정의했다.⁹ 혁신 전도사로 꼽히는 경제학자 슈페터는 혁신이 다섯

• 1890년대에 설립되어 페미니즘이 사회의 주류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캐나다 여성연구소’를 말함.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새로운 상품, 또는 새로운 질의 상품의 등장, 새로운 생산 방식의 등장, 새로운 시장, 반제품이나 원재료의 공급을 위한 새로운 원천의 획득, 어떤 산업의 새로운 조직화, 가령 독점의 창출이나 독점의 붕괴 따위다.¹⁰ 이런 관점에서 그가 20세기에 창출된 가장 중요한 혁신으로 꼽은 건 ‘경영’이다.

“경영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 개인이 서로 다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에 모으고, 그들을 함께 작업시키는 과업을 가능하게 해준 ‘실용적 지식’이다. 경영은 현대 사회를 정치 이론이나 사회 이론에도 없던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바꾸어 놓았다.”¹¹

그렇다면 사회 혁신은 어떨까. 사회 혁신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건 1960년대였다.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의 실험적 연구를 가리키는 용어로, 요즘의 쓰임새와는 조금 달랐다. 그러다 사회적 기업, 또는 기업가 정신, 사회적 이익을 낳는 기술 혁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열린 혁신 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한발 더 가까워지긴 했으나 이 정도로는 새로운 흐름을 오롯이 담아낼 수 없다.

2003년 봄,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사회혁신센터가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를 창간하면서 첫 편집자 노트에 사회 혁신

을 “사회적 필요와 문제에 대한 참신한 해법을 발명하고 지원을 확보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정의 내렸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 그리고 비영리 섹터 사이의 경계를 없애고 대화를 중재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¹² 벌써 15년 전에 사회 혁신의 기본 개념을 정리한 셈이다.

이쯤에서 ‘사회적’이란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짚고 넘어가자.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는 사회적이란 곧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즉, “혁신이 진정으로 사회적이라면, 그것의 균형이 개인적 가치 Private Value 보다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로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란 공공 또는 전체로서의 사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개인적 가치’란 기업가, 투자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아닌 평범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뜻한다.¹³

유럽정책자문국 BEPA, Bureau of European Policy Advisers 도 “사회적이란 표현은 혁신이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는 어떤 가치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이윤보다는 삶의 평등, 연대 그리고 웰빙 같은 주제와 연관된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⁴

2012년 유럽의 6개 연구 기관이 공동 연구 TEPSIE를 시작하며 사회 혁신을 이렇게 정의했다(정의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는 없다).

“사회 혁신은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고 새롭거나 발전된 역량과 관계 그리고 동시에 자산과 자원의 더 나은 쓰임새를 끌어내는 새로운 (기존의 해법보다 더 효과적인) 해법(제품, 서비스, 모델, 시장, 과정 등)이다.”¹⁵

복잡해 보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한결 쉽다. 3년간의 연구가 끝날 무렵 이들은 사회 혁신을 새롭게 정의한다.

“사회 혁신은 사회적 필요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이다. 수단과 목적이 모두 사회적이어야 한다. 수혜자를 참여시키고 조직하

사회 혁신의 다섯 가지 형태¹⁶

형태	설명	사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는 새로운 개입이나 새로운 프로그램	차량 공유, 제로 에너지 주택 등
새로운 실행	새로운 전문 역할이나 관계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	네덜란드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바꿔 시민과 지방정부 사이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
새로운 절차	새로운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과정	브라질에서 시작된 참여예산제, 공정 무역
새로운 규칙과 법률	새로운 법이나 권리를 만들어 내는 것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노인들이 정부 지원금을 어디에 쓸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개인 예산제(Personal Budgets)
새로운 조직 형태	사회적 기업처럼 서로 다른 요소들이 혼합된 조직 형태	영국의 블루워터(Blue Water)처럼 물을 팔아 모든 수익을 기부하는 기업

며, 그들이 힘과 자원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돕는다.”¹⁷

3년 전과 달리 해법이라는 말 대신 ‘접근’이라는 말을 썼고, 수단과 목적이 모두 사회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혜자(Beneficiaries)’란 말을 쓴 것과 그들의 참여(Engage)와 조직(Mobilise)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의 변화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분명해졌다. 연구를 막 시작하던 때와 견줘 3년간 무엇을 얻고 깨달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사회 혁신을 정의하는 말들은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뒤에서 사례들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이번엔 사회 혁신의 특징을 짚어보자. TEPSIE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혁신 활동이 되기 위해선 다섯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새로움, 아이디어에서 실행으로, 사회적 필요의 해결, 효과성, 실행을 위한 사회적 능력의 신장 등이다.¹⁸

■ 새로움(Novelty)

완벽하게 새롭거나 독특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혁신을 수용하는 단위에서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된다.

■ 아이디어에서 실행으로 From ideas to implementation

새로운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는 것과 그것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자리 잡는 것과는 다르다.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는 다른 곳으로 적용되고 확산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 혁신은 일정 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지속하여야 한다.

■ 효과성 Effectiveness

사회 혁신은 이미 존재하는 해법보다 더 효과적이어야 한다. 이는 측정이 가능한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품질, 사용자 만족도, 비용 절감, 삶의 질이나 사회 통합에서 더 나은 효과를 내는 것 등을 가리킨다.

■ 사회적 필요의 해결 Meets a social need

사회 혁신은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여기서 무엇이 사회적 필요인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사회적 필요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심각한 피해를 낳거나 사회적으로 드러날 만큼의 고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¹⁹ 사회적 필요는 사회적 문제(또는 권리, 요구 등)와 달리 낙인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더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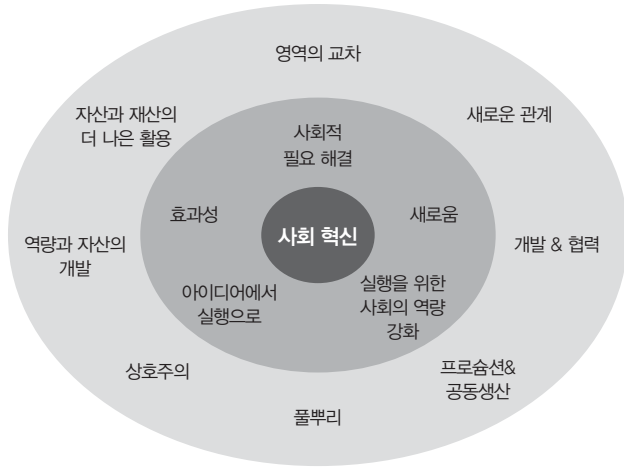
■ 실행을 위한 사회의 역량 강화 Enhances society's capacity to act

사회 혁신은 새로운 역할과 관계를 만들고, 자산과 역량을 발전시키거나 자산과 자원의 더 나은 쓰임새를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사회 혁신은 거버넌스를 바꾸고 취약 계층이나 위기에 처한 이들, 또 대표되지 않는 집단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바꾼다. 그런 점에서 사회 혁신은 힘의 관계를 바꾸고 사회 정치적 역량과 수혜자의 자원 접근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그들이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한다.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이 하나 더 있다. TEPSIE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사회 혁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²⁰ 어떤 결과를 낳을지 당장 가늠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더 나은 변화로 이끌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때로 많은 시간을 두고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 혁신이 만들어 낸 변화가 더 효과적이거나 더 민주적이거나, 더 정의로울지는 두고 봐야 한다.

게다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다. 어떤 집단에 이로운 변화가 다른 집단이나 개인에게는 해로울 수도 있다. 기술 혁신을 비롯한 모든 혁신이 그렇듯 사회 혁신도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감정을 품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혁신에서 배제된 집단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사회 혁신의 핵심 요소와 일반 특징



따라서 사회 혁신이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받아들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사회 혁신의 정의에 ‘수혜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이기도 하다.

설명이 길었다. 그만큼 사회 혁신을 글로 설명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여러 이론과 주장들을 모아 사회 혁신을 ‘설명’하려 애쓰고 있지만, 사회 혁신은 그것만으로 알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회 혁신을 풍경으로 보여주려 한다.

1장에서 사회 혁신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둠을 밝히는

빛나는 별이 되는 일이라고 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자면 그 빛나는 별 하나하나가 별자리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사회 혁신이 실현된다. 사회 혁신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와 이어지는 별은 나보다 먼저 답을 찾아 나섰던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일 수도 있고, 나와 같은 답답함을 느껴 내가 내민 손을 기꺼이 잡아준 이웃이거나 주민센터 공무원, 또는 기업의 엔지니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회 혁신은 우리 모두가 빛나는 별이 되고 또 그 별들이 서로서로 별자리로 이어져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일인 셈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영역과 모든 차원에서 사회적 실험을 촉진하고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두 번째로 할 일은 훌륭한 사회 혁신 사례들을 재생산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생산된 아이디어들을 연결함으로써 여러 작은 움직임이 합쳐져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²¹

에치오 만치니 교수의 말이다. 지금부터는 사회 혁신이라는 아름다운 별자리를 함께 엮어갈 다른 별들을 찾아보기로 하자.

부록

유럽의
사회 혁신 소개

2011년 43세로 요절한 SIX^{Social Innovation Exchange}의 수장 디오고 바스콘셀로 Diogo Vasconcelo를 기리기 위해 만든 대회로 전 유럽을 대상으로 EC가 운영한다. 2018년 6번째 대회를 열었다. 네스타NESTA, 케니스랜드KENNISLAND, 유럽리빙랩네트워크ENoLL, 아쇼카ASHOKA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혁신가와 기업가, 학생, 디자이너, 기술자, 교육자, 실행가와 메이커, 운동가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찾아 EC가 해마다 3개 프로젝트에 각 5만 유로(약 6400만 원)를 지급한다.

2018년 선정 프로젝트

2018년의 주제는 지역을 다시 생각함RE.THINK LOCAL이며, 젊은 세대가 경제를 변화시키는 데 참여하도록 힘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와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과 협력을 찾고자 했다. 70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2018년 3월 20일 공모 시작 → 4월 27일 접수 마감 → 7월 16~18일 멘토링 아카데미 → 11월 8일 시상식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Career Bus(커리어 버스, 루마니아)

취업 기회와 정보가 부족한 작은 마을이나 시골 청년들을 찾아가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버스를

운영하는 프로젝트. 참여자를 버스에 태우고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 HeritageLab(헤리티지랩, 슬로바니아)

유네스코 세계 헤리티지의 이드리아(슬로바니아) 지부가 만든 헤리티지랩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젊은 혁신가와 지역의 헤리티지 기관을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훈련과 테스트 그리고 일자리를 더해진 체계적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Ulisse(올리스, 이탈리아)

여행을 사랑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다. 지역의 청각장애인과 여행을 원하는 청각장애인을 잇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각지의 청각장애인이 제대로 된 여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지역 청각장애인에겐 일자리를 제공한다.

2017년 선정 프로젝트

평등의 재부팅Equality Rebooted을 주제로 사람들이 기술 변화에서 비롯된 새로운 기회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돕는 아이디어를 찾았다. 40개 나라에서 약 800개의 프로젝트가 지원했다.

■ Buildx(빌텍스, 영국)

지속 가능한 집과 공동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도구와 지식을 제공하는 협력 플랫폼이다. 지속 가능한 건물을 대중이 더 싸고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로, 집 공급 체인을 디지털화하고 개방함으로써 투자와 디자인, 제조, 조립, 건물 운영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건물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도 기대한다.

■ Feelif(필리프, 슬로베니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멀티미디어 도구로, 터치스크린으로 사물의 모양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앱과 특별한 좌표를 이용해 스크린의 진동 신호를 감지해 사물의 모양과 윤곽을 느끼는 원리다. 시각장애인들이 더 많은 것을 읽고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 SAGA-The Peer-to-Peer Learning Platform(사가 플랫폼, 네덜란드)

빠르게 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유연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산업분야 전문가로부터 원하는 기술을 익힐 수 있으며, 블록체인을 이용해 트레이닝을 마친 결과를 디지털 기록으로 남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크라우드 투자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을 마련한다.

2016년 선정 프로젝트

통합적 공동체를 만들고 유럽 시민 모두가 이민자와 난민들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찾았다.

■ CUCULA(쿠쿠라, 독일)

베를린 이민자와 난민들을 위한 실용적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이탈리아 디자이너의 콘셉을 기초로 가구를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친다.

■ Project Virtuous Triangle(프로젝트 비루투스 트라이앵글, 터키)

시리아 출신의 초등학교생들에게 젊은 터키 출신 학생들을 연결해줌으로써,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나아가 민간 기업과 정부, 학교 그리고 다른 사회 혁신가들을 포함한 파트너십을 통해 젊은 세대부터

공동체의 유대감과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The Machine to be Another(머신 투 비 어너더, 스페인)

가상현실^{VR} 기술로 문화적 다양성을 공유하도록 돕는 프로젝트로, 난민의 몸과 경험을 체험해보고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한다. 음성 내러티브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세계 각국에서 온 난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를 학교와 도서관, 박물관, 기타 문화 기관에 제공하는 게 목표다.

2015년 선정 프로젝트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길 *New Ways to Grow* 을 주제로 성장을 이끌고, 금전적 이익 창출을 넘어 사회 진보를 유지하도록 뒷받침하는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를 찾았다.

■ Apiform(아피폼, 보스니아)

노년층이나 관절염을 겪는 사람들,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앉아서 양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로, 낮은 곳에서도 벌집을 열고 달을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양봉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 기업이 육성과 생태적 삶의 확산, 나아가 유럽에서 양봉 인구를 복원하기 위해 유럽 전역으로 모델을 확산시키는 게 목표다.

■ The Freebird Club(프리버드 클럽, 아일랜드)

노인들을 위해 설계된 개인과 개인 간 여행 및 홈스테이 플랫폼이다. 멤버십 기반 모델로, 노인층에게 사회적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 Wheeliz(휠리즈, 프랑스)

휠체어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조 차량을 싼 가격에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2014년 선정 프로젝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찾아 각 3만 유로를 지원했다. 1250개 프로젝트가 응모했다.

- From waste to wow! QUID project(쓰레기에서 와우로! 퀴드 프로젝트, 이탈리아)

버려진 옷을 재활용하는 의류 제작 협동조합을 만들어 소외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 Urban Farm Lease(일반 팜 리즈, 벨기에)

도시의 빈 공간을 이용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브뤼셀에서만 7500개의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Voidstarter(보이드스타터, 아일랜드)

실업자들에게 빈집을 재생하는 기술을 가르쳐 빈집 문제와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다.

2013년 선정 프로젝트

2013년 유럽에서의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 세 개의 아이디어를 찾아 각 2만 유로를 지원했다. 약 600개의 프로젝트가 응모했다.

- Community Catalyts(커뮤니티 캐탈리스트, 영국)

기업과 공동체의 재능을 연결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다. 작은 규모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돌봄과 건강 관리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확대하고 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 Economy App(이코노미 앱, 독일)

경제적 약자들이 가진 기술을 앱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지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 정보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한다.

- MITWIN.NET(미트윈넷, 스페인)

젊은층과 노년층 사이의 일자리 공유로 실업을 줄이려는 프로젝트다. 세대 간 네트워크로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일자리와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유럽 혁신수도상
The European Capital of Innovation Awards

혁신을 활용해 시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준 유럽의 도시에 주는 상이다. 특히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한 도시,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에 시민을 참여시킨 도시 그리고 도시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데 혁신을 사용한 도시를 꼽는다. 혁신 수도로 선정된 도시에는 100만 유로(약 12억 8000만 원)를, 2위 도시 다섯 곳에는 10만 유로를 지급한다.

EU에 소속된 나라의 도시이거나, EU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2020에 참여하는 나라의 도시면 가능하다. 단 10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여야 한다. 선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혁신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냈는지 보여줘야 한다.

- 혁신적 컨셉, 과정, 도구, 그리고 테스트 베드로서의 거버넌스 모델 등에 대한 실험
- 혁신 과정에 시민 참여와 그들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질 것에 대한 보장
- 다른 도시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시의 매력 확장
- 혁신 활동을 통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추가적 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시민에게 귀한 부여

호라이즌 2020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독립적 전문가 패널이 심사를 맡

으며, 2018년의 경우는, 4월에 개시해 7월까지 접수를 받고 9월 최종 후보에 오른 도시에 대한 평가와 배심원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발표하였다. 16개 나라의 26개 도시가 경쟁을 벌였다.

2018년 유럽의 혁신 수도로는 그리스 아테네가, 2위 도시에는 덴마크 오르후스 Aarhus, 독일 함부르크, 벨기에 루벤 Leuven, 프랑스 툴루즈 Toulouse, 스웨덴 우메오 Umeå 등이 뽑혔다.

지금까지 유럽의 혁신 수도에는 2017년 프랑스 파리, 2016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1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각각 뽑혔다. 2015년엔 선정하지 않았다.

2016년 혁신 수도로 뽑힌 암스테르담은 95만 유로의 상금을 받아 '메이크 유어 시티 Amsterdammers, Make Your City!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역과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풀뿌리 조직들과 성과를 나눔으로써 도시의 혁신 역량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암스테르담 의회, 케니스랜드를 비롯한 사회 혁신 기관들이 이끌고,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와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이 지원했다. 사회적 기업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475개의 시티 메이커들이 응모한 가운데 37개의 팀을 선정해 이들에게 총 60만유로의 지원금과 6개월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전략과 프로젝트 수립, 커뮤니케이션과 펀딩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이었다. 펀드를 모으고, 암스테르담 의회와 경제위원회, 스마트시티 등의 기관과 네트워크에 참여할 기회도 마련되었다.

프로젝트는 '건강한 도시', '재능이 넘치는 도시'라는 두 가지 테마에 초점을 맞췄다. 선정 프로젝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자.

■ Vertical Farms(수직 농장)

수직 농장과 교육을 결합시킨 프로그램으로, LED 빛과 수중 생태계를 이용해 실내에서 채소와 식물을 키운다. 학교에 설치해 학생들이 채소를 기르는 법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에 친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7년 11월에 GrowX라는 하이테크 수직 농장이 세계 최초로 암스테르담에서 공식 오픈하기도 했다. 시는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까지 암스테르담 시민 절반에게 수직 농장에서 재배한 채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 Chef Her Samen(함께하는 요리사)

워크숍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하고 요리책을 만들어가면서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건강한 삶에 관해 일깨워주는 프로젝트다.

■ OPOEH(오포)

5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이웃의 반려동물과 그 주인들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외로운 노인에게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정서적 교감과 더 많은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바쁜 주인들에게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을 제공한다.

■ ECO Coin(에코 코인)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생태적 가치를 함께 나타내는 새로운 통화로, 환경에 기여하는 활동을 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지급한다. 가령, 차 대신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5ECO의 통화를 지불하고, 이 통화를 지역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활동에 얼마만큼의 통화를 지급할 것인지는 공동체가 정한다. 만약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길 원한다면, 다 같이 모여서 일정량의 플라스틱에 대해 통화를 지급하는 식이다.

■ BLOK(블록)

청년들을 위한 대안 미디어 플랫폼이다. 뉴스가 점점 더 부정적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시안들만을 다룬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긍정적이고 통합적이면서도 비판적인 뉴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문을 열었다.

■ Makers Unite(메이커스 유닛)

암스테르담에는 1만 2000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물건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 이민자들이 재능을 기르고 일자리를 찾는 등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국의 대표적 사회 혁신 기관 네스타는 2012년부터 2년마다 영국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자 급진적 사고(Radical thinking)를 하는 개인과 단체 50명(팀)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네스타는 이를 통해 영국의 실용적 급진주의(Practical Radicalism) 전통을 되살리고자 한다. 실용적 급진주의를 대표하는 사례로는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국민보건서비스(NHS)와 역동적 도시 공동체를 꼽는다.

단체의 규모 제한은 없으나, 영국에 기반을 두고 6개월 이상 진행된 프로젝트여야 한다. 참여자들은 성과와 지속 가능성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윤이 주요 동기여서는 안 된다.

미디어에 크게 노출되지 않았지만 관심을 받아 마땅한 작지만 의미 있는 사례들을 선정해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도 있으나, 2년마다 50개나 되는 많은 수의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데는 자국의 혁신 역량에 대한 자신감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 래디컬스 2018은 2018년 4월 28일 자정까지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9월에 최종 발표했다. 제프 멀건 네스타 대표는 결과를 발표하며 “영국의 급진주의적 전통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몇몇 사례를 소개한다.

2018년 선정 프로젝트

■ UV Arts(유브이 아트)

2015년에 설립한 공동체이익회사(CIC)로 그래피티를 비롯한 도시에서 유용한 예술 활동을 통해 청년들 사이의 인종 차별 의식과 편견을 깨뜨리는 프로젝트다. 청년들이 전문가들로부터 예술 작업을 배우면서 욕구를 건설적으로 표출하고, 자긍심을 얻고, 공동체에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The Offside Trust(오프사이드 트러스트)

성적 학대 피해 아이들을 치유하고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청소년 시절 성적 학대를 겪은 전직 프로 풋볼 선수들이 만들었다. 유소년 스포츠 클럽을 대상으로 비밀 청취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치유를 돕는 ‘생존자 지원 토크’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Siena Castellon(시에나 카스텔론)

자폐에 대한 이해를 높여 노력하는 16세의 소녀로, 그녀 자신이 자폐와 난독증 등을 겪고 있으며 학창시절 내내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자폐를 겪는 청소년들을 돕고자 웹사이트를 만들어 자신의 경험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팁을 공유했는데, 이것이 교사들과 자폐 학생을 돕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다. 최근엔 자폐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멀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당사자들의 필요가 정확히 반영된 연구가 진행되도록 돕고 있다.

■ Disrupt Disability(디스러프트 디스어빌리티)

오픈소스 디자인과 3D 프린팅 그리고 분산 제조 시스템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이들에게 몸에 꼭 맞는 휠체어를 싼 값에 제공한다. 설립자이자 CEO인 리첼 왈취(Rachael Wallach)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옷처럼 몸에 꼭 맞는 휠체어라는 뜻에서 휠웨어(Wheelwear)라고 부른다. 골반에 꼭 맞게 설계된 의자는 물론, 등받이, 앞바퀴, 발판 등 모든 것을 모듈로 만들어, 마치 발에 맞는 신발을 고르듯 몸에 맞는 휠체어를 조립할 수 있다.

2016년 선정 프로젝트

■ Beat The Street(비트 더 스트리트)

사람들의 운동량을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동네를 게임 속 공간처럼 구성해 사람들이 걷고 뛰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포인트를 얻도록 한다. 참여자들에게 ID카드를 제공하고 동네 곳곳엔 센서를 설치해 사용자들이 카드를 대면 이동한 거리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된다. 공동체적 접근 방식으로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다. 학교, 기업, 공동체 조직, 지방정부, NHS와 주치의, 지역 언론 등이 참여한다. 2015년에만 21곳에서 17만 5000명이 참여했다. 실제로 차량 이용도 줄고 지역정부의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통계도 있다.

■ Granby Four Streets Community Land Trust(그랜비 포 스트리트 공동체 토지신탁)

지역 내 집과 공동체 시설들을 지역민들이 항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동체 기반 조직이다. 주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번창하고 생동하며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 Goldthorpe & Bolton on Dearne Big Local(골드스롭&볼턴온던 빅 로컬)
골드스롭과 볼턴온던 지역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큰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버려진 많은 빈집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몇몇 빈집을 사들여 사람들을 교육해 수리한 뒤 이를 지역 주거기관에 되팔았다. 이로써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생겼고 공동체엔 자산이 생겼다.

2014년 선정 프로젝트

■ Peck Vision(피크 비전)

어디서든 손쉽게 눈의 이상 여부를 검사하고, 나아가 망막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는 프로젝트다.

■ The Real Junk Food Project(리얼 정크 푸드 프로젝트)

지역 식당에서 남은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식당이다. 고객은 원하는 만큼 돈을 지불하고, 돈이 없을 경우 봉사활동으로 음식값을 대신할 수 있다.

■ Code Club(코드 클럽)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무료 방과후 학교다. 2012년 20개 클럽으로 시작한 뒤 2년 뒤에는 2500개 클럽으로 성장했다.

■ Spacehive(스페이스하브)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다.

“좋은 일이 이뤄지길 바란다면, 당신이 직접 하는 게 최선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힘 소셜 이노베이션 Social Innovation

죽은 항구에 세운 유토피아, 리빙랩, 지역 화폐, 도시 광부
웨이스티드 블록, 쪽방촌 지도를 만드는 드론
노인들의 프리버드 클럽, 적정기술, 플랫폼 협동조합...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유쾌하고 기지 넘치는 30가지 실험과 도전
싸우지 않고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글로벌 사회 혁신 현장을 만나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으로 시민사회의 혁신 흐름을 도울 수 있었던 건 큰 보람이었다.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고 현명하며 해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중심이다. 실제 사례와 경험을 풍부하게 소개한 이 책이 널리 읽혀서 사회 혁신 네트워크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 **하승창**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전)

이 책에는 줄리엣과 도시 광부들처럼, 정부의 빈자리를 채우는 다양한 시민의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가히 시민들이 엮어가는 사회 혁신판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라 할 만하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장려하고 싶다면 이 책에 등장하는 시민들의 실험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이다.

- **황석연**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시민협업팀장

값 15,900원



ISBN 979-11-964869-3-8